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원도에 지원하였고, 재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합격수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진짜 교사가 된건지 어안이 병병한 상태예요.. 합격수기 정말 쓰고 싶었는데 막상 쓰고 있으니 꿈만 같네요.

초수 : 경기 지원 / 62점으로 합격(컷보다 +3) / 최종 컷에서 3점이 모자라서 불합격

재수 : 강원 지원 / 71점으로 합격(컷보다 +12) / 최종 점수: 161.25 (강원 컷: 150.01)

1. 초수때의 실패경험

저는 초수에 1차를 합격했지만 최종에서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험을 못봤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안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차 시험이 끝나면 내가 못봤든 잘봤든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꼭 2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실때도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준비하면서 실기 4개 그 짧은 기간에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ㅠㅠ 맨날 울었어요 진짜..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기에 서울을 치려고 했는데 경기도가 많이 뽑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77명..) 지원했는데요.... 물론 많이 뽑는다는 것도 지역선택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전공이나 연고지, 수업실연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시구 결정하시면 나중에 2차 준비하시면서 수월하실거예요!

게다가 제가 멘탈이 정말 너무너무 약해서 장지연 선생님이나 위상 선생님께 상담을 굉장히 많이 요청했었어요. 두 분 다 저에게 1차 합격할 테니까, 걱정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 불안해했었고 제 자신을 못 믿었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시험장에서 너무 떨었고.. 그로 인해 교육학도 제대로 못 썼어요. 전공시험도 망한 것 같아서 내내 울면서 답안지를 작성했던 기억이 나요. 결과적으론 1차를 합격했지만 못봤다는 생각에 준비를 안했어서 최종은.. 불합격했죠.. 허허

장지연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 1차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다면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쌤들이 진짜 가능성 있고 진짜 합격이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2. 재수 생활

초수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했지만 어찌 되었던 1차 합격을 했었기에 제 공부방법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수랑 재수랑 공부방법이 비슷해요.

저는 심화자료에 단권화해서 계속 회독하고, 백지쓰기 했어요. (초수 때는 백지쓰기 많이 안했구요, 재수 때 많이 했어요.)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합격 설명회를 짝 봤어요, 각 양 각 색의 공부 타입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렇기 때문인지 공부방법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상 쌤께 상담 요청해서 알려주신대로 계획 짰어요. 초수 쌤들은 그게 편하실거예요.

2월까지 일을 했고 본격적인 공부는 3월부터 했어요. 일단 위상 심화이론 인강으로 결제해서 강의 올라올 때마다 틈틈이 듣구 복습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육학은 초수땀 일년 패키지라 들었구요!

5-6월에 문풀강의 시작할 때 직강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아침7시까지 노량진 도착해서 맨앞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 들었어요.. 초수 때는 성실하게 진도 따라가며 장지연 선생님이랑 위상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었죠.

저는 스테디 따로 안했고 혼자 공부했어요. 기상스테디랑 막판에만 캠스테디 했어요. 그날그날 수업들은거 느리더라도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구요, 문풀하고 나면 새로운 개념들 심화자료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단권화 했어요. 기본이론은 7-8월에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추가로 결제해서 병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초수 때의 공부기억을 떠올리면.. 심화자료에 문풀, 모의고사 자료 모아서 꾸준히, 성실하게, 무식하게(?) 계속.. 회독하고 손으로 써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은 매일매일 30분정도 시간내서 외웠습니다. 월요일 시작할 때마다 공부 분량 계획하고 끝내면 저한테 항상 잘했다는 뜻으로 맛있는 것 먹기와 같은 보상을 주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계획은 크게 짜주셨었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교육학 직강	교육학 직강				문제풀이 기본이론/심화이론에 출간거 읽기(복습)	
오후			서양미술사 or 한국/동양미술사 (3주에 한 번 바꾸기)	기본이론/심화이론 복습 틀리기 순서 : 미술교육론-> 교육과정-> 표현(회화, 전통회화,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 및 비평	전공 직강		OFF
야간	교육학 복습	교육학 복습				기본이론/심화이론 복습 틀리기 순서 : 미술교육론-> 교육과정-> 표현(회화, 전통회화,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 및 비평	교육학 글쓰기 예습

∴ 매일 오전이든 오후든 30분에서 1시간 썩 교육과정 외우기 / OFF인 날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교육학이나 전공 예습

밑의 표는 제가 공부 진행해가면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진행한거예요! 저한테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고쳐갔어요. 이번 달의 목표 정해서 '요번주는 서양미술사 2 회독 하기!' 이런 것도 정했어요.

7월

월	화	수	목	금	토
6/25	26	27	28	2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직강 ▶ 교육과정 스터디 (중학교 체험, 표현,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모의고사 ▶ 교과서분석반 인강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교육론 (시각문화, 다문화, DBAE) ▶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교육론 (창의성중심, 표현기능 등) ▶ 서양미술사 스터디 (2차 세계대전이후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월 직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월 문제풀이 복습 (서양미술사) ▶ 교육과정(고등학교 체험, 표현, 감상)
2	3	4	5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직강 ▶ 교육학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복습 모의고사 (교육과정) ▶ 5,6월 문제풀이 복습 (한국, 중국 미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조형사, 표현(전통회화, 서예, 공예) ▶ 교육과정(고등학교 미술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미술사 (신고전주의~1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 옵아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문제풀이반 ▶ 풀이 찾아보면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복습 ▶ 교육과정(미술창작)
9	10	11	12	1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직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복습 모의고사 (교육과정, 평가) ▶ 미술교육론 기본이론 인강 듣기 ▶ 기출문제반(미술교육론) 인강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교육론, 교육과정 스터디 ▶ 교육과정(미술감상과 비평-미술의 역사) ▶ 기출문제반 인강 필기 ▶ 감상, 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미술사 (미니멀리즘부터 끝까지, 풀어보기) ▶ 교육과정(미술감상과 비평-미술의 비평) ▶ 미술교육론 (처음부터 쪽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문제풀이반 ▶ 풀이 찾아보면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복습(미술교육론) ▶ 교육과정(미술 감상과 비평 전부터) ▶ 중국미술사 풀어보기 (화론중심)

3. 2차 준비

확실히 재수 때는 초수 때보다는 시험장에서 덜 떨었어요. 그리고 다 처음 보는 도판들이라 너무 당황했는데 그래도 평소에 장지연 샘한테 취지파악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요, 열심히 그림 읽고 제가 알고 있는 개념 총동원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 실기 (30점 만점에 29.67)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그 다음주부터 미술학원 다녔어요. 1차 준비하면서 사전등록 했었거든요.

강원도는 석고정물소묘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석고소묘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서양화 전공이어서 정물수채화로 대학을 갔기에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려서인지 형태 잡고 덩어리 만들어 가는게 은근 어려웠어요..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석고의 모습에 익숙해지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실기선생님이 석고 형태 시범 많이 보여주셨고 많이 신경써주셔서 저도 열심히 따라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쌤..) 석고 안그려본 선생님들께서 강원 지원하실거면 열심히 하셔야 할거예요. 생각보다 버거웠어요. 그래도 초수 때 지옥의 경기 실기 4개를 경험해봐서 그랬는지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남 선생님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준비했는데 정물 소묘 많이 참고도 되었고 샘들 모두 좋으신 분들이셔서 마음 맞는 샘들과 즐겁게 미술학원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이 강원 준비했던 선생님들과도 서로 으쌰으쌰 힘을 주며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특히 줄리앙의 그 뿌글 머리가 그리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시험장에서는 비너스가 나왔습니다. 자리도 시험 시작전에 관리번호로 뽑았는데, 저는 13번이었어요. 1-6번, 7-12번, 13-17번 이렇게 6,6,5명씩 시험장 3개로 나눠서 들어갔는데 저는 비너스 완측이었어요. 그리기 수월했고, 정물도 제가 완성할 수 있을 만한 정물들 잘 선택해서 필수랑 선택 조화롭게 구성했습니다. 정물 구도 같은거는 연습 많이 하시면 잘 하실거예요!

아이소 핑크같은.. 스티로폼 위에 정물들이 뒤죽박죽 여러개 섞여 있었구요, 이젤과 정물간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어요. 감독관들이 나눠주는 종이에 써 있는 선택정물들 무엇인지 체크 잘 하시구요. 필수정물은 맨 뒤로 보내버리시든 앞에 있든 그림 안에 있거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필수정물 두 개나 뒤로 보냈거든요..

✦ 면접 (50점 만점에 41.5)

저는 면접을 너무 못 봐서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 같은 실수 안하시길 바라며.. 씩니다::

강원도는 시책 중심으로 나와서 시책을 달달 외우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50점이라는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해요. 그런데 저는 1차 점수가 높았기도 했고 작년에 경기도 봤을 때 면접점수가 1점도 안까여서 잘볼거라는 생각에 엄청 열심히 안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구상형1 즉답형3에 15분 구상, 15분 면접인데, 저는 시책 중심으로 문제내는 면접스터디 진행하다가 1차 발표 이후에는 주 2회 짝스터디로 시책문고 답하기 했어요. 카페 같은데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고 웬만한건 다 잘 대답해서 면접엔 별 걱정 안했는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이걸 안나올거야, 싶었던 게 나와버려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즉답형도 황설수설하고 연습할 때는 항상 남던 시간이 15분을 꽉채우고 나왔어요.

강원도는 10점 20점씩 확확 깎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수업실연 시험인데 구상형 1번 대답 못한게 너무 신경쓰이고 미칠 것 같아서 수업실연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요..

실제로는 8.5점 깎이긴 했지만, 끝까지 생글생글 웃으며 당황한 티 안내고 면접관들 한분한분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던 모습이 그나마 덜 깎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강원도 시책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신다면 저처럼 많이 깎일 일은 없을 꺼예요::

✦ 수업실연 (20점 만점에 19.11)

수업실연 스터디는 다른 지역 미술 교과 선생님들과 주 3회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룸에서 하다가 1차 발표 난 뒤에는 학교 교실 빌려서 주2회로 했습니다.

초수 선생님들은 나중에 위상미술 2차 강의 때 앞에 나와서 수업실연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거 많이 보시면 도움 될거예요. 저도 초수 때 수업실연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습보

고 참고 많이 됐어요.

수업실연은 조건 지키기와 동기유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스토리 텔링 식으로 동기유발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이런 동기유발을 진행해야지, 라던가 틀 같은걸 따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개 때는 작품 감상하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판서로 꼭 키워드 정리 해주기, 활동 안내 시 판서에 간단하게 정리해주기 이런 것 처럼요.

이번엔 미술과 과학의 융합이 나왔는데, 저는 시간강사 할 때 경험을 살려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용어로 바꿔서 진행했고요, 선생님이 어디 갔다가 무엇을 봤는데~라는 식의 경험 이야기를 했어요. 면접관 중 한 분은 폼! 하고 웃으셨구요 한 분은 활짝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저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마무리

저는 임용 시험을 두 번 보았는데, 준비하는 내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공부 때문에 나의 성향 자체를 바꾸기도 했고 나에게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존감이 낮았던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었던 값졌던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서로 으쌰으쌰 해서 잘 되자, 라는 마음을 갖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교직에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되어서는 다 만날 사람들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정말로요.

저는 연예인 덕질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맛있는 것 먹기, 수다떨기, 친구들과 놀기 등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시면서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임용공부 하면서 만났던 인연들이 전부 소중한다고 느꼈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같은 힘들을 겪었다는 것 때문에 동질감도 느껴지고 무슨 말만 해도 잘 통하고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공부하면서 만나는 인연들과 서로 잘되자는 마음 갖고 잘 지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건.. 자기 자신을 깎아 내리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힘들 때마다 전 저를 믿고 지원해주는 부모님 생각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선생님이랑 위상 선생님께 문자도 자주 보내고 영영 울면서 전화도 드리고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죄송하구요 하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